해외통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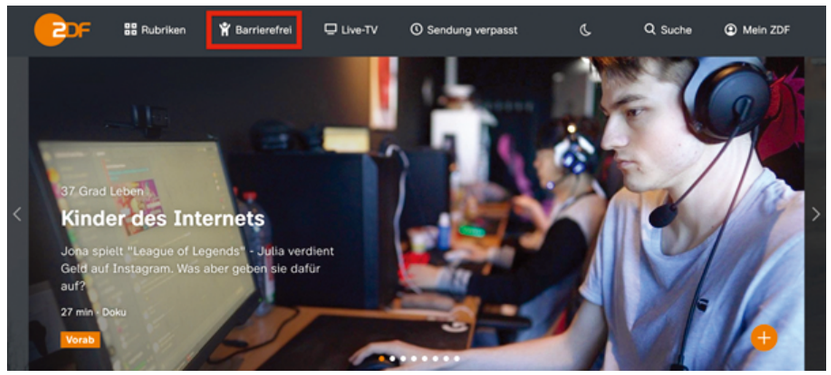
모두를 위한 미디어: 독일의 미디어 접근성

이유진 프리랜서 기자
라이프치히대학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 석사

지금 독일 공공영역의 핵심 키워드는 '무장벽(Barrierefreiheit)'[1]이다. 디지털 공공영역도 예외가 아니다. 공영방송과 공영 라디오 등이 제공하는 미디어 플랫폼, 독일 연방정부 등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무장벽' 카테고리가 첫눈에 보인다. 독일에서 디지털 혁신과 전환은 곧 무장벽 미디어를 구축하는 것과 같다. 언론 미디어 부문에서는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전파를 사용하는 민영 방송,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 논의가 이뤄진다. 신문과 같은 출판 언론도 온라인 미디어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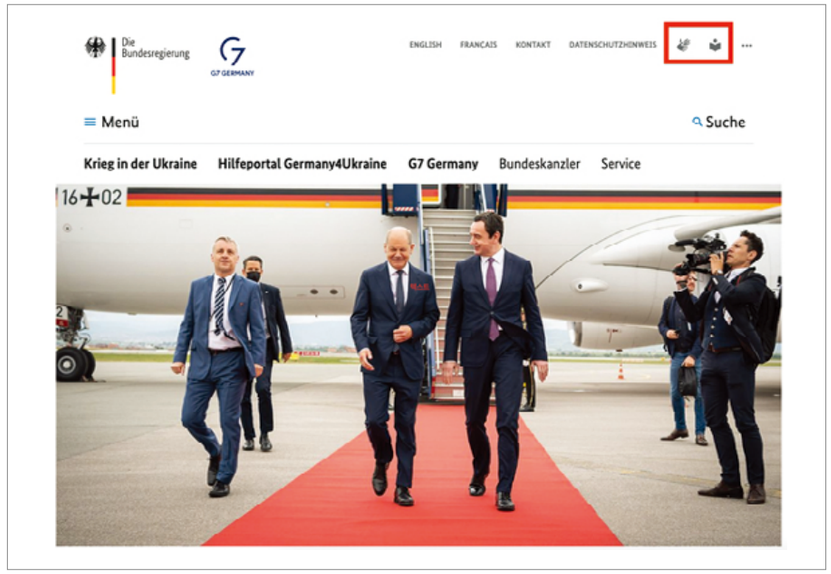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2] 첫째 미디어의 표현 방식, 둘째 미디어 접근성, 셋째 포함적인 미디어 교육이다. 미디어의 장애 표현 방식은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사회 참여나 배제에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 접근성은 민주주의적 여론 형성에 필수적으로 누구나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접근을 의미하지만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해하며, 생산하는 주체가 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또한 포함한다. 본고에서는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에 집중하여 독일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림 1〉 독일 공영방송 ZDF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에 무장벽(Barrierefrei) 옵션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출처 : ZDF

〈그림 2〉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수화와 '쉬운 독일어' 아이콘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출처 : bundesregierung.de

1) 독일어 '바리에레프라이(Barrierefrei)'는 배리어프리와 같은 말로 본고에서는 맥락에 따라 무장벽, 장벽 없는, 배리어프리 등으로 혼용한다.
2) Bosse, Ingo (2014). Ethische Aspekte inklusiver Medienbildung. Gleichberechtigter Zugang zu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 als Voraussetzung. ComSoc Communicatio Socialis, 47(1), pp.6–16.

미디어 접근성의 법적 근거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는 개인이 처해 있는 제한된 사회적 환경과 조건에서 발생하는 제약이다. 사람의 장애가 아닌 사회 시스템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동등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리어프리, 즉 접근성의 개념이다.

독일은 기본법(Grundgesetz)을 포함한 여러 법적 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본법 제3장제3절에 따르면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평등법(BGG)과 일반평등대우법(AGG)에서는 공법 및 사법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새로운 장애 개념(ICF), 2008년 발효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적용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한 없는 사회 참여와 자기결정 기회를 주는 것은 인권의 영역이다.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독일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미디어 접근성 확대를 시혜나 배려가 아닌 사회 시스템의 의무로 보고 있다.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edienstaatsvertrag)은 독일 공영 및 민영방송, 온라인 미디어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국가협약 제7조에 따르면 "독일 공영 및 민영 방송사는 기존의 프로그램 이외에 기술 및 재정적인 가능성 내에서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채택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할 의무도 있다. 민영 방송사의 경우 허가 및 관리 기관인 주미디어청에 공영방송국은 각 감독기관에 최소 3년에 한 번씩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방송 채널뿐 아니라 텔레미디어, 즉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벽 없는 접근성을 지원해야 한다.

미디어국가협약에 포함된 전체 주정부간 의정서선언(Protokollerklärung)에서는 미디어법의 향후 개선 및 개혁 제안을 명시하고 있는데, 배리어프리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선언문에 따른 주정부의 목표는 "배리어프리 미디어 서비스를 확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 담론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정부는 "여러 관련 협회, 주정부 및 연방 대표,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 등과 추가적인 협력 하에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진보하는 기술적 가능성을 감안할 때 주정부는 법적인 의무와는 상관없이 배리어프리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공영방송 수신료 또한 미디어 접근성 원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독일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공영방송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수신료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의무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청각장애(Taubblinde)와 법적으로 규정된 특수한 경우에만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3] 이러한 수신료 시스템은 미디어 접근성과 무장벽 담론의 핵심을 보여준다. 장애인을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가진 사용자로 보고, 접근성을 제약하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미디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깔려 있다. 장애인의 수신료 납부가 의무인 것처럼 방송국이 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의무다.

〈그림 3〉 독일 공영방송의 대표 뉴스 프로그램 타게스샤우(tagesschau) 뉴스자막 제공 화면

출처 : tagesschau

〈그림 4〉 독일 공영방송의 수화 제공 화면

출처 : MDR

3) 독일 수신료국가협약 Rundfunkbeitragsstaatsvertrag

독일 공영방송의 배리어프리 방송

독일 제1공영방송 ARD은 2011년 본격적으로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결의[4]했다. 국제적으로 장애 개념과 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사회적 제약 개선 등의 논의가 활발하던 시기다. 미디어 장벽을 허무는 수단은 자막, 화면해설방송, 수화, 쉬운 언어 서비스 등이 있다. 자막의 경우 농인,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대중교통 등 소리를 크게 틀어 놓을 수 없는 장소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제1공영방송 채널 다스에어스테(Das Erste)는 현재 방송 프로그램의 98%에 자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5] 자막 제공 방송 비율은 2012년 49%, 2013년 80%, 2017년 95%으로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했다.[6] 화면 해설은 화면의 배경, 배우의 모습과 행동, 분위기 등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듣는 TV'로 시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스템이다. 화면 해설은 정보만 전달하는 뉴스의 경우는 의미가 크지 않지만,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처럼 화면의 배경과 인물 표정, 분위기 등을 함께 전달해야 하는 콘텐츠에 유용하다. ARD는 2013년 주요 시간대에 송출하는 엔터테인먼트 방송에도 화면 해설을 제공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화면 해설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현재 다스에어스테의 주요 시간대 프로그램의 41%는 화면 해설을 이용할 수 있다.[7]

독일 공식 언어인 수화 사용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독일 공영방송은 대표 뉴스 프로그램 타게스샤우(Tagesschau) 8시 뉴스의 경우 별도 채널을 통해 수화 동시통역으로 송출한다. 그 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광범위한 수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ZDF 호이테저널(heute jouranl) 등 뉴스 및 주요 시사 교양 프로그램,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에도 수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 뉴스의 경우 통상적으로 화면 아래쪽에 작게 수화 통역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 공영방송의 경우 수화 통역자가 화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별도 영상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기존 프로그램에 기술적으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수화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4) Mohr, Inge & Schiller, Dietmar (2022). Mediale und digitale Teilhabe: Barrierefreiheit und Medienkompetenz im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 Media Perspektiven 1/2022.
5) https://www.ard-digital.de/inklusion/untertitel
6) https://www.daserste.de/specials/service/untertitel-allgemein100.html
7) https://www.ard-digital.de/inklusion/audiodeskription

사례 1. '듣지 말고 보세요(Sehen statt Hören)'[8]

독일 바이에른 공영방송(BR)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독일에서 유일하게 청각장애인 시청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제작, 송출되고 있는 방송이다. 1975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매주 1회 30분가량의 분량으로 제작된다. 바이에른 지역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이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아 독일 전역 공영방송 9개 채널에서 송출되고 있다. 방송 주제는 시사 교양부터 문화, 교육, 역사, 아동,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전 영역을 아우른다. 수화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자막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수화를 음성으로 통역한 오디오로 더빙되어 있다. 사회자는 물론 출연자 대다수가 농인이거나 청각장애인이다. 방송 초기에는 수화 교사가 수화와 말을 동시에 하면서 진행했지만 1990년 초부터 농인이나 청각 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993년부터는 방송 제작과 편집도 청각장애인들이 직접 맡고 있다.[9]

〈그림 5〉 독일 바이에른공영방송의 '듣지 말고 보세요' 1977년 3월 26일자 방송[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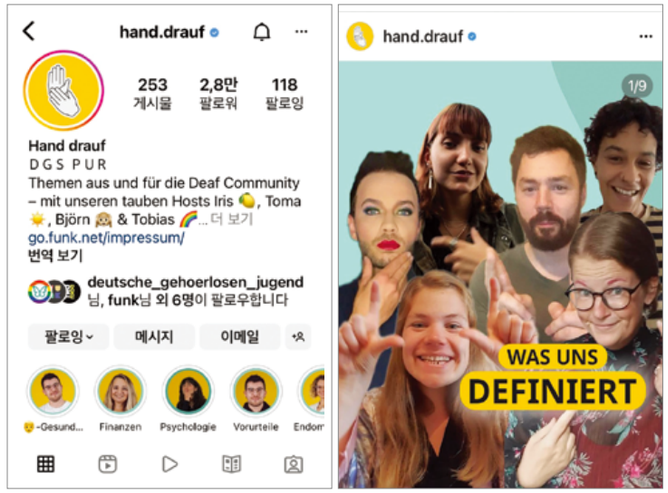
사례 2. '손을 내밀어 봐(@Hand.drauf)'[11]

독일 공영방송의 디지털 플랫폼 풍크(Funk)가 제작하는 인스타그램 수화 채널이다. 2019년 9월 온라인(유튜브) 채널로 시작했다가 그해 12월 중단, 재정비를 거쳐 2020년 11월 인스타그

8) https://www.br.de/br-fernsehen/sendungen/sehen-statt-hoeren/index.html
9) Rona Meyendorf, Marco Lipski (2005.04.13). Sehen statt Hören – Blick hinter die Kulissen.
10) https://www.youtube.com/watch?v=czxmxOysxp0&t=67s&ab_channel=Retroversum
11) https://www.instagram.com/hand.drauf

램 채널로 다시 시작되었다. '농인 커뮤니티를 위한, 농인 커뮤니티에 의한 테마'라는 모토로 세 명의 청각장애인 청년들이 출연한다. 앞서 소개한 '듣지 말고 보세요'가 비교적 중장년층 시청자를 타깃으로 한다면 '손을 내밀어 봐'는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회자뿐만 아니라 출연자도 대부분 청년 세대 청각장애인이다. 인스타그램 공개 영상은 더빙을 삽입하지 않고 소리 없는 영상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림 6〉 독일 공영방송 플랫폼 풍크(Funk)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수화 채널



출처 : instagram@hand.drauf

어려운 언어로 평가받은 독일어권에서는 '쉬운 언어'도 중요한 배리어프리 분야 중 하나다. 독일은 복잡한 독일어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비문해자가 600만 명 이상 있을 것으로 추산[12]하고 있다. 쉬운 독일어는 학습 능력이 부족한 사람뿐만 아니라 독일 이주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외국인, 치매나 뇌손상 환자 등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독일어 문장을 짧고 쉽게 쓰는 것이다. 문장뿐 아니라 폰트나 자간 등 문단 형태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 현재 도이칠란트라디오(Deutschlandfunk)[13]에서 쉬운 뉴스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북독일방송(NDR)[14], 중부독일방송(MDR)[15] 등 다수 지역공영방송에서 자체적으로 쉬운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12) bpb (2019.09.08). Weltalphabetisierungstag. URL: https://www.bpb.de/kurz-knapp/hintergrund-aktuell/296238/weltalphabetisierungstag
13) https://www.nachrichtenleicht.de
14) https://www.ndr.de/fernsehen/barrierefreie_angebote/leichte_sprache/index.html
15) https://www.mdr.de/nachrichten-leicht/index.html?logoklick

공영방송국의 배리어프리 프로그램을 분석한 잉게 모어(Inge Mohr)와 디트마르 쉴러(Dietmar Schiller)는 "공영방송은 다수의 배리어프리 프로그램과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요구 사항을 갖추고,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 및 디지털 참여에 가능하도록 디지털 사회를 연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디지털 참여, 미디어 참여를 진흥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임무"로 공영방송 또한 "지속적인 배리어프리 프로그램을 통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로는 쉬운 언어 서비스 확대, 배리어프리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결합한 프로그램, 다양성 감수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그림 7〉 독일의 쉬운 뉴스 사이트

출처 : www.nachrichtenleicht.de

독일 민영방송의 배리어프리 현황

독일 미디어국가협약은 공영방송뿐 아니라 민영방송의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확대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물론 기술 및 재정적 가능성을 조건으로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 독일 민영방송 허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미디어청연합(die medienanstalten)은 2013년부터 민영 방송국의 배리어프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16] 초기에는 주요 민영 방송사인 RTL과 프로지벤자트아인스(ProSiebenSat.1) 두 곳만 모니터링 하다가 2016년부터는 시장점유율이 1% 이상인 방송국으로 확대했다. 최근 개정된 미디어법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하게 되면서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같은 OTT플랫폼도 지난해 처음으로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16) Holsten, Cornelia & Spittka, Eva (2022). Barrierefreiheit im privaten Fernsehen. Die Ergebnisse des neunten Monitorings. Die medienanstalten.

2021년 4분기에 실시한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RTL의 일일 자막 제공 프로그램 비율은 21%다. 지난해에 비해 4% 증가했다. 매일 30개 프로그램이 자막과 함께 송출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의 자막 프로그램 비율도 3배 증가했다. 지난해 총리 후보 토론회에서는 수화 동시 통역이 처음으로 제공되었으며, 총 6개 드라마 시리즈에 화면해설 서비스를 제공했다.

프로지벤자트아인스 방송국은 5개 채널 프로그램의 자막 제공 비율이 평균 33%로 집계됐다. 지난 모니터링과 비교해 6% 증가했다. 화면해설 방송은 제공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방송국은 지난해 경영진과 종업원 평의회, 장애인대표자 등과 함께 기업의 포함 전략을 위한 협약(Inklusionsvereinbarung)을 체결했다. 장애인 대표 단체와 협업해 관련 주제를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 시장점유율이 1% 이상인 벨트(WELT), 디즈니 채널, DMAX, 코메디 센트랄(Comedy Central) 등이 모니터링 조사에 참여했다. 디즈니 채널의 경우 배리어프리 프로그램이 전무하며 아직 내부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했다. 그 외 방송국들의 경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의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제 막 제공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등 OTT 플랫폼은 전통적인 방송 채널보다 더 광범위하고 손쉬운 방식으로 자막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플릭스는 향후 자막뿐 아니라 스크린 리더, 단순 입력 기능, 음성 인식 등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민간 방송 사업자에게 배리어프리 서비스 확대를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감독기구의 모니터링은 배리어프리 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확대를 독려하는 주요한 관리 도구로 기능한다. 독일 미디어청연합은 "이번 모니터링 보고서는 민간 미디어의 배리어프리 부문이 자막 제공 그 이상이라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수화, 화면해설, 쉬운 언어 등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모두를 위한 TV

독일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모두 배리어프리 프로그램이 있지만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방송국 웹사이트마다 들어가서 확인해야 한다. 접근성은 배리어프리 콘텐츠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얼마나 손쉽게 해당 콘텐츠를 발견하고, 찾고, 활용할 수 있는가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이처럼 '접근성으로의 접근성'을 위해 구축된 플랫폼이 '모두를 위한 TV(TV für Alle)'[17]다. '모두를 위한 TV'는 독일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40여 개 채널 프로그램 중 자막이나 화면 해설이 있는 프로그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채널별, 시간별, 장르별로 프로그램 내용과 송출 일정을 일목요연하게 찾을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장애 접근성 관련 시민단체인 '사회적영웅들(Sozialheld*innen)'이 주도하고 공영방송과 미디어청연합, 민간방송사업자연합 등이 함께 구축했다. 장애인이 설립하고 다수의 장애 당사자가 일하는 사회적 영웅들은 미디어 접근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기자나 미디어 제작자에게 장애인과 소수자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 소스를 제공하는 게젤샤프츠빌더(Gesellschaftsbilder.de)[18]가 주요 사례다. 미디어의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애인을 장애인으로만 다루지 않는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다.

〈그림 8〉 독일 자막 및 화면해설 방송 정보 제공 플랫폼 모두를 위한 TV(TV für Alle)

출처 : tvfueralle.de

미디어 접근성은 과소대표되는 소수자들의 사회참여(Teilhabe)와 포함(Inklusion) 담론과 함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독일의 미디어 접근성은 견고하고 촘촘한 법적 근거에 실행력이 더해져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연방정부와 공영방송 등 공공기관이 시스템 변화를 주도하고, 내용을 채우는 데는 장애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미디어에 표현되는 객체로서가 아니라 메시지와 미디어를 만드는 주체로 나선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중요한 요소인 직업의 기회로도 확장된다. 독일의 접근성도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 분명한 것은 이제 무장벽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과 방향성만큼은 확고하다는 점이다. 기술적 접근성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뿐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을 포함하는 '모두를 위한 미디어'를 지향하고 있다.

17) https://tvfueralle.de

18) https://gesellschaftsbilder.de